

노인 복지 향상 위한 일자리 제공

전주시, 2025년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1만6495명 모집

전주시는 27일까지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1만 6495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모집인원이 가장 많은 노인공익활동사업(11개월)은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35개 동 주민센터와 16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및 대한노인회 등)에서 기관별로 접수할 예정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노인공익활동사업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등으로, 시는 소득·재산 및 활동 역량 점수 등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공익활동사업 일자리의 경우 △공원 및 거리 환경정비 △쓰러진 교통신호 및 급식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자 1인 3시간(30시간 이내) 11개월 근무하며, 월 20만 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공익활동사업 신청이 마무리된 이후인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노인역량활동사업 참여자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통해 모집한다.

노인역량활동사업 참여자는 △보육 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공공전문 서비스분야를 지원하는 활동 등에 참여하게 되며, 주 15시간 이내(월 60시간) 10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다.

내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1만1489명의 공익활동사업 참여자와 5000여 명의 역량활동사업 참여자 등 총 1만 6495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내년 1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의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35개동 주민센터 및 19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건강도 지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가 2일 전주시역 도서관 여행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전주시의회 행정위, 도서관 여행 현장 점검

서학예술마을·전주시립 꽃심·학산숲속시장 도서관 방문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최용철 의원)가 2일 전주시역 도서관 여행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최용철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전주 도서관 여행 장소인 서학예술마을도서관, 전주시립 꽃심 도서관, 학산숲속시장도서관을 방문해 시민과 지역 방문객과의 공감대 형성, 해외 방문객 확대 방안 등을 검토했다.

전주 도서관 여행은 지난 3월 9일 시작해 11월 종료된 여행 코스다. 해당 사업은 하루, 반일, 야간 코스로 도서관과 복합문화시설을 방문하는 3개 코스로 운영 중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책의 도시 전주가 한국을 넘어 해외에도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 중화산1동 주민자치위, 장학금 200만원 전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성철)는 2일 신흥중학교 교장실에서 관내 청소년 10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총 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학업의지가 강한 모범적인 학생을 선정해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함으로써 지역의 인재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되었다.

김성철 주민자치위원장은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이 꿈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마을버스 ‘바론’ 월동 준비 완료

시설공단, 29대 전 차량 겨울용 타이어 장착 등 일제 점검 나서

전주시 마을버스 바론이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월동 준비를 마쳤다.

전주시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은 겨울철 강설과 기온 하강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바론을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차량 점검부터 운행 취약 구간의 노선 운행 방안 마련, 마을 주민들과의 협조 체계 구축까지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민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바론 차량 29대 모두에 겨울용(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했다.

겨울용 타이어는 높은 접지력으로 빙판길과 눈길에서 여름용, 사계절용 타이어에 비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

최근 국내 한 타이어 제조 업체에서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겨울용 타이어는 눈길과 빙판길에서 사계절 타이어에 비해 각각 약 51%, 14% 짧은 제동거리를 기록했다.



겨울용(스노우) 타이어를 장착 중인 전주시 마을버스 ‘바론’

또 전 차량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한층 강화했다.

공단은 폭설이 내릴 경우를 대비해 ‘폭설 운행 지도’도 별도로 제작했다.

상습 결빙 지역이나 눈이 많이 쌓이는 구간 등 운행 취약 구간의 노선 변경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 마을 주민들과의 연락망을 구

축해 폭설 시 신속한 정보 공유와 운행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연상 이사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을버스 바론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마을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욱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겨울철 눈길 안전 위한 ‘제설함 지도’ 제공

‘전주시 생활지리정보’ 통해 257개 위치 서비스 제공... 폭설·도로 결빙 상황서 신속 이용 가능

전주시가 겨울철 시민들의 눈길 안전을 위해 제설함 위치를 표시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겨울철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전주시역에 구축된 제설함의 위치 정보를 취합해 ‘전주시 생활지리정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제설함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겨울철 폭설이나 도로 결빙 상황에서 시민들이 가까운 제설함을 신속하게 찾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시민 서비스용으로 구축된 ‘전주시 생활지리정보’는 부동산과 연도별 항공사진, 생활테마맵(병원, 약국, 대피시설 등)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로,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의 분야별 정보(도시/주택) 또는 검색 포털시스템에서 ‘전주시 생활지리정보’로 검색하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제설함은 겨울철 도로 안전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안



‘전주시 생활지리정보’ 제설함 위치 표시 지도

전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